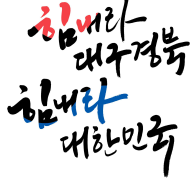
 금융위원회	보도해명	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0.3.12.(목)	
책 임 자	금융위 은행과장 박 민 우(02-2100-2950)		담 당 자	윤 현 철 사무관 (02-2100-2951)	

제 목 : 금융당국 콜센터 근무 5부제 시행, 직원 소득분 보전키로 (머니투데이방송 3.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“금융당국이 금융권 콜센터에 대해 5부제 근무를 적용하고, 이로 인한 직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로 했다”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
1. 기사내용

- 머니투데이방송은 “20.3.12일자 「금융당국 콜센터 근무 5부제 시행, 직원 소득분 보전키로」 제하의 기사에서,
- “금융당국이 ‘코로나19’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금융권 콜센터에 대해 5부제 근무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콜센터 직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줄기로 했다”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금융위는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금융권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으로,
- “금융권 콜센터에 대해 5부제 근무를 적용하고, 이로 인한 직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줄기로 했다”는 것은 사실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